

보도해명자료

(15. 10. 2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소비·규제완화에 밀린 수출진흥, 무투회의 기능
재조정 해야
(15.10.27, 서울경제)

1. 기사내용

- ① 8차례 무투회의를 통해 논의된 18개 안건 중 70% 수준인 12개가 내수 진작책
 - 그간 수출 대책이라고 해봐야 농수산물품 수출 확대 방안, 내수 기업 수출 기업화 촉진 대책 등에 불과
- ② 올해 들어 수출 관련한 논의는 7월 한 번에 그치는 등, 글로벌 수요부진 이유로 수출 대책이 없다시피 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① 그간 무투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무역(수출진흥) 관련 안건은 총 9개로 전체 안건의 50% 수준

< 무투회의의 수출 대책 논의 현황 >

- ① (1차)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
- ② (2차) 하반기 무역여건 진단과 수출확대 방안
- ③ (3차) 농수산물품 수출확대 방안
- ④ (5차)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
 - *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통한 역내 석유제품 등 거래(무역) 활성화
- ⑤ (6차) 농수산물품 수출확대 대책
- ⑥ (6차)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
- ⑦ (7차)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
- ⑧ (7차) 제조업 혁신 3.0 전략 실행 대책
 - * 주력 수출산업인 제조업 혁신을 통한 수출 증대
- ⑨ (8차)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

- ② 정부는 무투회의를 통해 올해 3차례 수출진흥 관련 안건을 상정·논의 한 바 있음

< 2015년도 무투회의의 수출 대책 논의 현황 >

- ① (7차, '15.3월)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
- ② (7차, '15.3월) 제조업 혁신 3.0 전략 실행 대책
 - * 주력 수출산업인 제조업 혁신을 통한 수출 증대
- ③ (8차, '15.7월)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

- ☐ 정부는 향후에도 수출과 투자 증진을 위한 민·관 논의의 장으로 무투회의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조영태과장, 김용운사무관(044-203-4024)

AOTIE
ISTRY OF
DE, INDUSTRY & ENERGY